통일과 남녀 평등

김영우/SBS라디오 방송국 PD

얼마 전 김대중 대통령이 한국인 최초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다. 어려운 경제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했는데 아직까진 별다른 반응이 없는 것 같아 안타깝지만 우리의 자부심을 높였다는 점에서 축하할 일이다.

그런데 IMF를 벗어났다고 한 지가 어젠데 또다시 경제위기가 설득력을 얻고 있으니 큰일이다.

요즘 우리 주위를 둘러 보면 상황이 심각하다. 유가는 뛰고 물가는 오르고 국제수지는 나빠지고 임금은 내리고…. 무엇보다 경제의 불확실성이 주는 불안감이 더욱 우리를 당황하게 한다. 주위엔 이렇게 우울한 얘기만 있을 것 같은데 즐거운 일도 있다. 바로 남북관계. 얼마나 잘되는지 이젠 속도를 조절하자는 말까지 나온다. 아니 성급한 사람은 통일이 몇 년안에 된다고 공언한다. 통일이 되면 우리에게 좋기만한 걸까? 구체적으로 나에게 어떤 좋은 일들이 생길까?

이런 저런 생각을 하는데 마침 재미있는 기사가 눈에 들어 온다. 바로 구(舊)동독 시절의 평등주의적 사회체제가 와해된데 따른 가장 큰 피해자는 다름아닌 동독출신 여성들이라는 기사이다. 실업률을 가지고 평가를 했는데 같이 살펴 보자.

구동독 지역의 여성 실업률은 19.8%로, 남성 실업률 15.5%는 물론 구서독 지역의 여성 실업률 8.9%와 비교해 아주 높은 수준이다. 더욱 문제는 구동독 지역에서는 장기 실업자의 3분의 2가 여성들로 채워져 있다는 점이다. 독일여성연맹의 우르줄라 쉐터 부회장이 지난 96년 말한 것처럼 '시장경제에 적응하려는 노력을 경주하는 여성으로서, 그리고 동독출신시민으로서 곱절로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는게 틀린 말은 아닐 듯 싶다. 이번엔 우리나라의 실정을 살펴 보자. 몇 달전 한 국무회의에서 정부위원회의 여성참여율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발표를 보면 정부부처 및 지방 자치단체에 소속된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 비율이 한번도 정부의 목표치에 근접한 적이 없었다는 것이다.

올 상반기 정부위원회의 여성참여율은 20.4%였는데 올해 목표율인 25%에 못미쳤던 것이다. 물론 지난해보다는 늘었지만 지난해 목표율인 23%조차 지키지 못한 낮은 수치이다. 정부는 대통령의 임기내에 정부위원회의 여성참여율을 30%로 끌어올리기 위해 98년부터 이 제도를 본격화 했으나, 목표율과 실제 참여율은 해마다 큰 괴리를 보였다. 이런 상황에서 남북이 통일되면 과연 남녀 평등이 지금보다 더 잘 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 물론 경제적 참여가 남녀 평등을 보장하는건 아니다.

하지만 남녀 평등이 경제적 독립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는 것도 틀림이 없다. 그나마 북한은 국민들의 일자리는 절대적으로 보장되고 있는데 통일이 된다면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한 상황이 온다면 독일의 경우처럼 여성들의 일할 권리는 박탈되고 남녀 평등의 길은 더욱 멀어지지 않겠는가.

통일은 누구나 바라는 바지만 이렇게 통일이 모든 사람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란 걸 생각하니 착잡한 생각이 든다.

그리고 좀더 통일이 우리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는게 우리에게 남겨진 의무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